

### 정답 및 해설

#### 1. ①

예사소리이면서 파열음은 ‘ㅂ, ㄷ, ㄱ’이다. 이 중 여린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는 ‘ㄱ’이다.

#### 2. ③

‘놀이’는 동사 ‘놀다’의 어간 ‘놀-’에 명사로 만드는 지배접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서술어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① ‘놀이 나는’의 ‘놀이’는 ‘날다’를 꾸며주는 부사이다.

② ‘끓이다’는 동사 ‘끓다’에 사동접사가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낱말이다. 사동접사가 모든 동사에 붙을 수는 없다.

④ ‘오시기’의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오기’ 자체가 부사어 ‘일찍’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동사이다.

#### 3. ③

이육사의 작품에서 알 수 있는 자세는 의지적인 태도와 ‘의로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③이다.

③ 사생취의(捨生取義): 목숨을 버리고 의리(義理)를 쫓음의 뜻으로, 비록 목숨을 버릴지언정 옳은 일을 함을 일컫는 말.

① 겸양지사(謙讓之辭):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말.

② 견리사의(見利思義): 눈앞에 이익(利益)을 보거든 먼저 그것을 취함이 의리(義理)에 합당(合當)한지를 생각하라는 말.

④ 백척간두(百尺竿頭):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위태(危殆)로 움이 극도(極度)에 달함

#### 4. ④

‘소나기’는 ‘도련님에게 퍼부어질 춘향의 격렬한 사랑’을 의미한다.

##### 서정주, <춘향유문>

◆ 성격 : 전통적, 고전적, 낭만적, 이상적, 초월적, 불교적

##### ◆ 표현

\* 여성적이고 섬세한 어투

\* 독백 형식의 문체

\* 4음보의 안정된 율격

\* 대조법, 대구법

##### ◆ 중요 시어 및 시구풀이

\*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 늘 안녕히 계세요.

① 푸르른 생명감의 표상

② 둘의 사랑이 이루어진 공간의 상징물

③ 임으로 하여금 생생한 사랑의 기억을 영원히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④ 첫 만남의 설렘 - 임의 안녕과 함께 사랑의 추억이 지속되기를 바람

⑤ 소나기가 되어 돌아올 것을 전제함-그들의 사랑이 늘 풍성하고 성장할 것이 되기를 바람

\*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 영원한 사랑이 '길이'로 표현

죽음의 세계조차도 춘향의 사랑 안에 있음을 말함.

\* 천 길 땅 밀 → 지옥

\* 도솔천의 하늘 → 극락세계

\* 그건 결국 도련님 걸 아니어요? → 영혼만은 항상 도련님과 함께 있음을 나타냄.

\* 겹은 물 → 구름 → 소나기 : 윤회사상, 인과론적 사상에 의거한 춘향의 변신

\* 소나기 → 도련님에게 퍼부어질 춘향의 격렬한 사랑

\* 거기 → 도련님이 비를 맞는 곳

임파의 정신적 합일의 경지

이 도령을 완전히 점령하는 사랑의 공간

##### ◆ 주제 ⇒ 시공을 초월한 여인의 불변불멸의 사랑

[시상의 흐름(짜임)]

◆ 1연 : 체념적인 인사

◆ 2연 : 과거의 사랑 회상과 작별의 말(1연에 대한 부연)

◆ 3연 : 죽음을 초월한 사랑

◆ 4연 : 생사와 시공을 초월한 사랑

◆ 5연 :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

#### 5. ②

고등어 열 손 = 20

복어 두 쇄 = 40

김 다섯 톳 = 500

삼치 두 뜶 = 20

조시 세 두릅 = 60

#### 6. ④

\* 가물에 도량 친다(복한어): 아무 보람도 없는 헛된 일을 하느라고 부산스레 짚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까마귀 미역 감듯: 까마귀는 미역을 감아도 그냥 검다는 데서, 일한 자취나 보람이 드러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7. ④

기본형이 ‘삼가다’이고, 단어에 이미 ‘하다’의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뒤에 ‘하다’를 붙여 사용하지 않는다.

#### 8. ①

빈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 갈 낱말은 ‘봄에 부는 바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의 뜻을 가진 ‘동풍’이다.

#### 9. ④

㉠에는 ‘내가 노래를 부르기’처럼 명사절이 안긴문장에 목적어가 있지만 ㉡에는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에서처럼 목적어가 없다.

①, ② ㉠에는 ‘내가 노래를 부르기’의 명사절이 안긴문장이, ㉡에는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의 명사절이 안긴문장이 있다.

③ ㉠과 ㉡ 모두 안긴문장에 관형어는 없다. ㉠에는 ‘노래를’이라는 목적어가 있고, ㉡에는 ‘벼농사에’라는 부사어가 있다.

#### 10. ③

알맞은 것은 ㉠, ㉡, ㉢이다.

⑦ 모음 ‘ㅔ, ㅖ, ㅚ, ㅟ’ 등은 15세기에는 이중모음이었는데 현대로 오면서 단모음으로 바뀌었다.

⑧ ‘어리다’는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어리다’로 의미가 바뀌었다.

⑨ ‘사랑하다’는 ‘생각하다’였는데 그 의미가 사라졌다.

⑩ 15C 주격 조사는 ‘-이, -ㅣ, 제로격’이 먼저 쓰이다가 17C에 주격조사 ‘-가’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⑪ 15C에는 글자 옆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로써 의미를 변별하였다. 이것이 점차 소리의 장단(長短)으로 바뀌었다.

⑫ ‘어여쁘다’는 ‘불쌍하다’에서 ‘예쁘다’로 의미가 변하였다.

### 11. ②

‘받다’의 과동형이 ‘받히다’를 써야 한다.

→ 통발을 신던 어부가 차에 벌혀 의식을 잃었다.

### 12. ③

편견(偏見):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① 오만(傲慢): 태도나 행동이 견방지거나 거만함. 또는 그 태도나 행동.

② 독선(獨善):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

④ 아집(我執): 자기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 = 집착(執着)

### 13. ②

이 글은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칸트의 철학이 전체주의가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성주의가 전체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비판하는 글이다. 따라서 아도르노는 이성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이성주의의 몰락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 14. ④

전복(全鯛): 전복과에 딸린 조개.

문맥상 전복(顛覆)이 어울린다.

① 전망(展望): 멀리 바라봄.

② 상응(相應): 서로 어울리다.

③ 복권(復權): 잊거나 정지(停止)되었던 권리(權利)나 자격(資格)을 다시 찾음.

### 15. ③

⑤은 이성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성적 사유가 인류의 발전과 자유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16. ②

⑥ 영어 공용화 실시는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⑦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다원주의적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⑧ 싱가포르가 좋은 예이다. ⑨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대비된다. ⑩ 그러나 한국은 환경이 조금 다르다.

### 17. ②

이 작품은 4음보의 민요적 문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기구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성격을 얻고 있다. ‘지양(止揚)’하는 것이 아니다.

#### 서정인, <달궁>

- ◆ 갈래 : 장편소설, 연작소설
- ◆ 배경 : 시간 - 현대(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 공간 - 서울과 시골 (전라북도)
- ◆ 문체 : 간결체와 만연체의 혼합.  
지문과 대화의 무시, 요설적(쓸데없이 말이 많음) 문체 등 혼합적인 문체.
- ◆ 시점 : 3인칭 전지적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자유로운 시점의 이동)
- ◆ 경향 : 리얼리즘
- ◆ 제재 : 한 여인의 죽음과 여러 인간 군상의 삶.
- ◆ 주제 : 여러 인물들의 삶의 궤적(軌跡)을 통한 인생의 참모습.  
(사회 현실의 격랑 속에서 겪은 개인적 삶의 존재 의식.)  
인물 : 나 - 연작(連作)인 <달궁>의 서술자이자 관찰자.  
인설 - 주인공. 연작(連作)인 <달궁> 25편에서 만나는 이들을 작중으로 연결시키는 인물.

### 18. ①

이 작품은 시를 쓰고 있는 시점보다 훨씬 먼 미래의 시점을 상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젊은 날의 삶의 반성이지 과거와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 ◆ 성격 : 비유적, 성찰적
- ◆ 표현 : 영탄적이고 애상적인 어조  
시를 쓰고 있는 시점보다 훨씬 먼 미래의 시점을 상정하여 시상을 전개시킴.
- ◆ 중요시여 및 시구풀이
  - \*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 청춘의 열정을 삭일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 \* 책 →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기록과 기억이 담긴 곳
  - \* 힘없는 책갈피 → 힘을 잃은(나이가 들어 희미해진) 기억의 좌표
  - \* 이 종이 → 이 시를 쓰고 있는 종이를 가리킴. 화자의 젊은 날의 고백과 방황의 기록이 담긴 종이
  - \* 책갈피가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 나이가 들어 희미해진 젊은 시절에 대한 기억을 회상시킬 것이다.
  - \* 마음에 세운 많은 공장 → 무언가를 생산하고 창조하기 위해 들끓는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 날 화자의 심적 상태
  - \*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 열정적으로 사는 듯 했지만, 결국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 지금까지의 삶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산 삶이었음을 깨달음.
  - \*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 화자가 젊은 날에 품었던 꿈과 열정은 결국 질투를 불과했다는 뜻임.
  - \*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젊은 글을 남겨 둔다 →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문장
  - \*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화자의 반성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핵심 구절
- ◆ 주제 : 젊은 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  
[시상의 흐름(짜임)]

1 ~ 2행 : 미래에 대한 상상(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일을 상상함.)  
3 ~ 6행 : 청춘의 모습(미래의 시점에서 바라본 현재의 모습) -  
부정적 인식  
7 ~ 11행 : 삶의 태도에 대한 반성적 성찰 ('내 희망은 절투')  
12~14행 :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은 청춘의 삶에 대한 기록을 남김.

19. ①

이 작품에 구체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다.  
② '유(儒)\*란 유(諺)\*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에서 동음  
이의어를 사용한 언어유희가 드러나 있다.

20. ③

이 글에서 범은 '유(儒)\*란 유(諺)\*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  
나.'처럼 말하며 북과 선생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

박지원, <호질>

- ◆ 성격 : 한문 단편 소설, 풍자 소설, 의인 소설, 우화 소설
- ◆ 창작 연대 : 18세기 말(정조 때)
-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 주제 : 조선 시대 양반의 도덕적 허위의식 풍자
  - ⇒ 북과 선생으로 대표되는 유학자들의 위선 풍자
  - 동리자로 대표되는 정절부인의 가식 폭로
- ◆ 등장인물
- ◆ 북과선생 → 이름 높은 위선자로서 벼슬을 싫어하는 체하는 선  
비이다. 그러나 남몰래 짚은 과부와 사랑을 속삭이다 동리자의 성이  
다른 다섯 아들에게 발견되어 봉변을 당하고 도망치다 뚱통에 빠지  
고 또 범을 만나 갖은 아첨을 다하고 농부를 만나서는 변명을 하는  
위선자이다.
  - ♣ 동리자 → 정의 고을에 살고 있는 과부로서 국가에서 열녀문까지  
받은 열부였으나 아버지가 다른 다섯 아들을 두고 있다. 더구나  
이름 높은 학자 북과 선생과 정을 통하다 아들들에게 발각된다.
  - ♣ 다섯 아들 → 동리자의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이다 자기 어머니  
와 사랑을 속삭이는 북과 선생을 여우의 변신으로 알고 습격한다.
  - ♣ 농부 → 정이라는 고을에 사는 농부로서, 새벽 일찍 북과 선생  
이 뚱통에서 나와 범에게 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유를 묻는다.
  - ♣ 의원 · 무당 → 정의 고을에 살면서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다.
  - ♣ 범 → 호랑이는 비록 인간은 아니지만 의인소설로 볼 때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호랑이는 북과 선생으로 대표되는 봉  
건 사회의 위선적 유학자들을 꾸짖는 역할을 한다.